

“겨울철새 31만 마리 공습”...전남도, 시·군 단방역 안간힘

대응 수준 최고 단계로 유지...시·군 함께 빈틈없는 방역 나서 사육 제한·조기 출하·소독 확대·차단방역 실천력 강화 호소

예년보다 급증한 겨울철새 때문에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철새는 고병원성 AI를 유입 시키는 주변으로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가금농장 AI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지역에 겨울철새 31만 마리가 유입됨에 따라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로 유지하고 시·군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역학조사 결과 농장 방역 수준이 전년대비 급증한 철새에 의한 오염원 확산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겨울철새는 지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줄어든 156만 5000마리가 서식하고 있지만 전남은 오히려 8% 늘어난 30만7000마리가 관찰됐다.

특히 고병원성 AI 전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오리과 철새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27만5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철새서식지별로는 전체 개체수의 40%인 12만4000마리가 영암호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호에서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벨트인 '나주·영암·무안·함평'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 중이며, 위험요인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생농장 역학조사에

서도 예년과 달리 상시 환기장 개방 미흡, 전실 미운영, 왕겨 살포·로터리 작업 시 소독 미흡 등 농장 내부의 방역 수준이 오염원 확산 추세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는 방역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로 유지하고, 시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육 중인 닭·오리 실소유자인 계열사가 주인 의식을 갖고 해당 계약 농가를 관리하도록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의 방역지역 밖 오리농장 41곳은 추가로 사육제한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우리는 45일령 출하에서 38-39일령 출하로 5일 이상 단축을 유도한다.

농장 밖 오염원 제거를 위한 소독도 1일 2회에서 3-4회로 강화한다. 농장 내부 차단방역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장은 온정주의를 배제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가



겨울철새 도래지 영암호 뜬새. (사진=전남도 제공)

농장 마당과 축사 입구까지 오염시켜도 가금 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실천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농장주는 출입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해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 “시민 출근길 안전 밤샘 제설작업”

“큰도로는 시청이, 작은도로는 구청이, 내집 앞은 시민이”

광주시는 19일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샘 제설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설특보 속 자체 보유한 제설장비와 민간제설장비 44대를 투입,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결빙지역에 대한 밤샘 제설작업을 벌였다.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치우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시는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조정했다.

시민들의 원활한 출근길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도 증편 운행했다. 도시철도 1호선은 4회, 시내버스는 26개 노선 53회를 추가로 편

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방문, 폐쇄회로 TV(CCTV)를 보며 주요 도로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전남 연계교차로~계수교차로 구간 제설차량에 직접 탑승, 제설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큰 도로는 시청에서,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내집 앞은 시민이라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 안전한 광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2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반부패 정책 노력, 성과, 확산 결과를 3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 한해 전남개발공사는 부패예방, 청렴관리, 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청렴패드를 제도, 감찰·청렴시민감사관, 청렴해피콜 운영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

따라서 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여 경영 전반에 부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광양 수소산업 온택트 투자설명회

투자의향기업·수소 관련 기관과 협회 등에 투자여건·매력 소개

전남도와 광양시는 수소산업의 필요성과 국내외 산업 동향,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계획, 항만 연계형 수소특화단지 구축계획 등 투자 여건과 매력을 설명하고 투자기업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온택트 투자설명회에는 에어프로덕츠와 H2KOREA 등 지역 투자에 관심이 있는 다수의 기업과 협회가 유튜브를 통해 참여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청정 수소에너지로 친환경 제조업 강국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귀동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전남도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 저장기술(P2G)로 그린수소 실증·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라며 “최근

수소법 개정으로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투자 기업인의 성공을 돕고 전남 수소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영광 모빌리티 산업, 6월 해남 해상풍력 산업, 11월 화순 바이오산업에 대해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2023년부터는 대면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민선8기 목표인 30조 원 투자유치와 3만 5천개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방송은 투자설명회 방송은 ‘옴전남튜브’(www.youtube.com/c/greenjeonnam1896)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는 최근 광양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소산업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전라남도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택트 투자설명회는 전남도와 광양

시,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피앤오케이미칼 관계자가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옴전남튜브’를 통해 수소 관련 기업, 협회, 유관 기관 등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Philo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녹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240,833원	125,531원	1.1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1.7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1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2.7배
1분위	26,697원	-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비 10%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